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최선 두마리토끼 잡은 '진안힐링여행'

무주군, 추진위원회 위원 40명 위촉... 설립지지 기반 마련 위한 홍보·사업추진 도모

무주군은 지난 23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 4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기반을 다지고 내실 있는 홍보와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으로, 전통문화의 집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황인홍 군수는 추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참석자들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명을 듣고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수건 퍼포먼스를 통해 사관학교 설립을 염원하는 결연한 의지를 선보였다.

황인홍 군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관학교 설립을 가능케 할 동력이고 태권도인 설립에 이어 또 한 번의 역사를 창조해낼 주역"이라며 "세계 태권도 성지 무주를 완성하고 태권도 수도이자 허브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태권도는 한류의 원조이고 태권도원은 태권도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성지, 그리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태권도를 전 세계로 뻗어가게 할 문화 고속도로이자 무주 태권도시티의 완성, 태권도의 올림픽 영구 종목화를 가능케 할 만능열쇠"라며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태권도인의 1%, 150만 명이 성지 순례하듯 우리나라를 찾고 무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발 맞춰 나가자"고 덧붙였다.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는 2023년까지 사관학교 설립지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범 군민운동 전개와 서명운동 추진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무주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들은 "태권도원이라고 하는 바늘에 사관학교라고 하는 실이 제대로 꿰어져 국기 태권도와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 그리고 태권도성지 무주가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되기를 바란다"며 "태권도원을 세웠던 무주군민이

라는 자긍심으로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사관학교는 국제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전문 교육기관(전 세계 210개국에서 입학생 모집, 졸업생에게는 국제 사범 자격 부여)으로 무주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사관학교 설립 지지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또 태권도계를 결집시키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2.4.)과 국기원(3.9.), 대한태권도협회(3.31.) 등과도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사관학교 설립을 2022년 국가예산 100대 중점사업으로 채택했다.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 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도 나서 사관학교 설립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각 정당에 전달한 상태.

/무주=전문선 기자

체험객 힐링·치유 시간 제공·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1석 2조 효과

진안군은 마이산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진안힐링여행' 프로그램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알차게 운영되고 있어 진안의 매력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관내에 소재한 (주)H포레스트(진안의 산림과 문화자원을 도시민에게 소개하고 체험과 연계한 농산물과 임산물 홍보 사업 추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2020년도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크라우드펀딩 지역관광상품개발 특별기획공모전'에 선정돼 마이산과 인근 숲 등에서 서울·경기지역 체험 방문객 50여명을 대상으로 산림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4월 한 달 중 2차례에 걸쳐 1박2일로 추진된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체험객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SNS상에서 프로그램 편딩을 통해 프로그램을 후원할 수도 있

으며, 참여자의 사정에 따라 1일, 1박2일 체험이 선택 가능한 유연한 운영으로 진안지역의 주 관광객인 40~60대 뿐만 아니라 SNS소통이 활발한 20~30대 및 외국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은 ▲치유가 있는 체험(숲치유, 약초차만들기, 산약초채취) ▲문화가 있는 산책(마이산탐사 해설안내) ▲피톤치드 숙박(진안고원 치유숙) 등으로 이뤄져 진안의 매력을 느끼고 동시에 힐링과 치유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진안힐링여행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따라 지역특산물과 임산물 판매 계약도 활발히 이뤄지는 등 임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군에서도 추후 사업 확장 등에 있어 긴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H포레스트는 하반기(10월 예상) 중에도 2회정도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070-4870-0287)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 개최

진안군은 지난 23일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2021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진안군은 청년사업가들이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잠재 창업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27명의 청년 창업가를 지원했다.

올해 사업은 청년 기본보조제 개정을 반영해 연령 기준을 기존 만 39세에서 만 45세로 확대하고, 창업 기준을 2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했으며,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여 엄격한 서류평가 및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11명의 청년창업자를 선정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보조사업의 올바른 집행과 정신, 사후관리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의 추진 절차, 보조사업 집행 및 정신 시 유의사항 등 실무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진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기적이고 후안무치한 판단"

진안군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지난 23일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날 성명서에는 일본 정부에서 '처리수'라 부르는 오염물질에는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이 남아있으며, 이를 바닷물과 희석하여 방류하는 계획은 방사능 물질을 그대로 해양에 방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민규 의원은 성명서 채택 이유에서 "이번 방류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주변국과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처사로 전 세계의 해양오염과 수산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일본의 오염수 처분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의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후안무치한 판단은 결국 자초수가 되어 자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우리 정부도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 수산물의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일본산 먹거리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진안군의회 성명서는 국회·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우규 진안군의원, 공직자 지역식당 이용 촉구

진안군의회 이우규(진안 가 선거구) 의원은 지난 23일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관내 음식점 이용'을 촉구했다.



이우규 의원은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늘어나고 있다"며 "관내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안군청 공직자들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외식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관내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지역식당 이용 독려와 군청 구내 식당의 일시 중단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우규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관내 상인들의 얼굴에 다시금 미소가 번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이 군민들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안군청 공직자들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외식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관내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지역식당 이용 독려와 군청 구내 식당의 일시 중단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우규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관내 상인들의 얼굴에 다시금 미소가 번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이 군민들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 '미안마 군부 쿠데타 규탄·민주주의 회복' 촉구 성명서 채택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안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우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명서에는 지난 2월 1일 미안마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수제'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를 구금하는 등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미안마 군부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자국민들의 소중한



한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있고

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4·19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을 겪으며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기에 미안마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끝내는 민주주의가 승리한다는 미안마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지지한다"며 "민주주의라는 찬란한 꽃을 피울 때까지 진안군의회는 미안마 국민들과 연대할 것을 다짐하며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아동학대 예방 활동·즉각분리 제도 안내

장수군은 군민 인식 개선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를 강화하고 아동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활동 및 즉각분리 제도 안내 및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홍보 활동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나서 아동 거주지 및 군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형 및 아동학대

가 의심 사례, 피해 아동의 특징 등을 안내하고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학대 의심 신고 가정을 방문해 즉각분리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군 홈페이지에도 즉각 분리 제도 취지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을 게시해 범시민 인식개선과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신고 활성화를 도모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